

### DASA, 고등훈련기 개발에 난항 파트너 물색에 고심

독일의 다임러 벤츠 에어로스페이스(DASA)가 개발중인 AT-2000 고등훈련기 개발에 참여할 국제 파트너를 찾지 못해 고심하고 있다.

현재 동사의 계획은 올해 초부터 약 1년간 항공기 개발 정의단계(Definition Stage)에 착수할 예정인데, 이를 위해서는 약 2십억 달러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동사는 이 단계부터 리스크를 분담할 국제 파트너를 물색하고 있지만 아직 마땅한 업체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 논의되고 있는 업체는 한국의 현대우주항공과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데넬(Denel).

데넬의 경우 DASA뿐만 아니라 브리티쉬 에어로스페이스(BAe), 러시아 업체 등과도 협상 중이며 최종 결정은 공군이 내릴 예정이다. 하지만 DASA에 따르면 최종 협정까지 이르는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지난해 한국정부가 고등훈련기 사업을 삼성항공 및 록히드마틴사로 결정한 이후 현대우주항공의 참여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DASA는 이밖에도 스페인의

CASA, 프랑스의 다소, 스웨덴의 사브사 등과도 논의하고 있다. DASA측은 영국의 호크 훈련기의 뒤를 이을 고등훈련기로 AT2000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BAe사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지만 BAe 측에서는 별 반응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 이탈리아, C-130J 구매결정

이탈리아 공군이 오랜 협상 끝에 미국 록히드마틴사의 C-130J 허큘리스 2 수송기 18대를 구매기로 했다. 이제 남은 것은 조기경보용으로의 구매다.

이번 계약은 총 12억 달러 규모이다. 록히드마틴사는 첫 인도를 1999년 중반경부터 시작 2004년까지 연 3대꼴로 생산납품할 예정이다.

이탈리아 공군은 또한 공중조기경보장치를 장착한 항공기 4대의 구매도 검토중이다. 하지만, 만일 국방예산이 부족할 경우 이번 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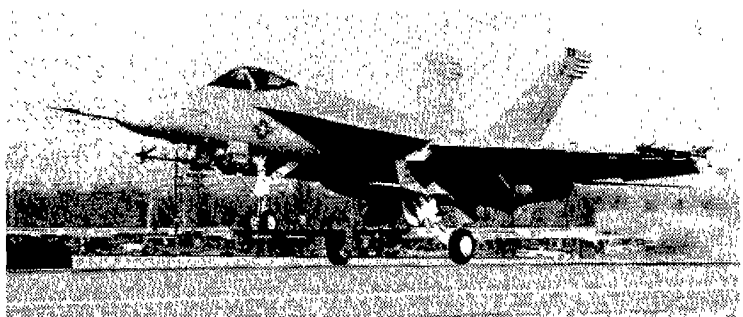
약의 마지막 4대분을 공중경보기로 전환시킬 가능성도 있다.

이로 인해 이탈리아의 군수송능력은 오는 2005년까지 30대의 C-130H/J를 비롯하여 18대의 알레니아 G222 전술수송기등을 보유 이전보다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구매계약으로 록히드 마틴사는 음셋 팩키지 조건에 100% 동의 했는데 이중 약 40%는 항공기 구조물 등 C-130J와 직접관련된 부품이다. 생산은 알레니아 및 피아트(Fiat Avio)사가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 美, 국방사업 점검 단거리 전투기 선호

미국의 국가 방위 위원회(National Defense Panel)는 미국의 전술전투기의 구매 축소와 새로운 장거리 항공기 개발계획의 부활이 향후 미국의 차세대 국가안보전략에 필요한 것으로



미국의 국방사업 점검에 따라 개선된 F/A-18의 실전배치가 감소될 전망이다

전망했다.

미 정부와는 독립적인 기관인 동 위원회는 국방 분석가 및 산업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조사에는 미국의 단기 및 장기적인 국방구매전략에의 안을 제시하였다.

위원들은 공군 및 해군 전투기 구매에 대해 전술 전투기의 수는 줄이고 대신 지상에의 정찰장비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그리고 첨단기술의 빠른 채용을 위해서는 고 가격의 소량생산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좋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함께 F-22 사업을 군비축소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 하다며 만일 초기에 F-22전투기가 실전배치된다면 개선된 F/A-18의 실전 배치수는 그만큼 감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 위원회가 제시한 차세대 국가안보전략에의 개선안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 항공우주력

- ※ 단거리 항공기 축소, 무기탑재능력 강화
- ※ 장거리 항공기 개발에의 새로운 접근
- ※ 충분한 위성시스템의 개발 그리고 첨단화
- ※ STOVL기의 충분한 활용
- ※ 지상 정찰능력의 강화

#### 공군

- ※ 무기의 첨단 및 전자화
- ※ 특수임무에의 침투력 강화
- ※ 고정밀, 장거리, 스텔스 미사일의 개발
- ※ 센서 및 무기들의 네트워크 강화

#### 육군

- ※ 수직이륙기로의 전환

#### 해군

- ※ 유인/무인 STOVL기 개발

### 유러파이터, '98년 청신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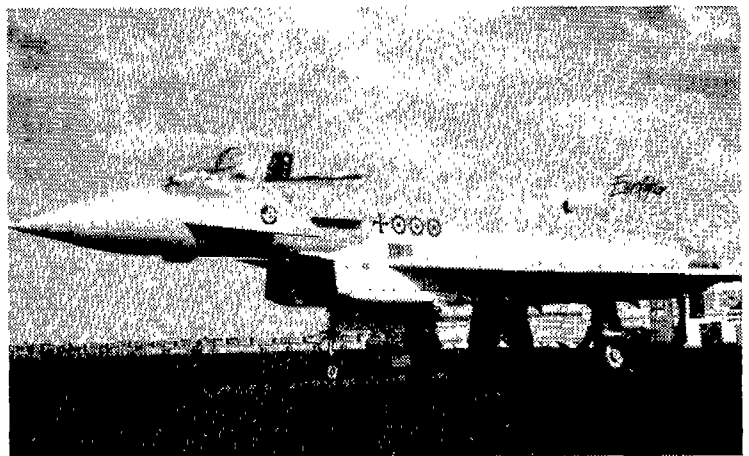
4국의 유러파이터 개발국의 정상들이 지난해 12월 22일 그동안 오랜시간동안 지연됐던 생산 투자 및 생산협약에 대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이번 서명은 이탈리아 의회의

권유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탈리아 정부는 그동안 독일의 확실한 구매결정을 기다려 왔으며 지난 11월 독일이 국방예산에 유러파이터의 구매를 결정 하였다.

유러파이터의 브라이언 필립스 전무는 정식계약은 앞으로 수 주 내에 이루어 질 것으로 전망하며 현재 계약에 필요한 준비는 모두 마무리된 상태라고 말했다. 유럽 4개국의 총 계약대수는 약 620대에 90대의 옵션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유러파이터는 각종 무기장착에 관한 성능실험을 비롯, 스핀 회복, 비행제어시스템, 엔진장착 등에 대한 실험을 수행중이다.



Lima 에어쇼에서 유러파이터의 mockup이 전시되었다